'개관 35주년' 국립전주박물관, 비전 선포

청년정신… 새출발 다짐

'깨어있는 역사, 살아있는 문화, 모두에게 열려있는 박물관' 비전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 서예문화 특성화가 핵심 목표… 활기찬 박물관 조성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26일 개관 35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을 갖고, 전북 대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실천을 새롭게 다짐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전주박물관은 '깨어있는 역사, 살아있는 문화, 모두에게 열려있는 역동적인 박물관'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먼 옛날부터 세상을 향해 꿋꿋하고 당당하게 문화를 꽃피워 온 전북의 역사를 바탕으로, 진취적으로 언제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활기찬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이러한 비전을 한 줄에 담은 새 슬로건 '청년정신, 국립전주박물관'과 박물관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새롭게 정비한 MI(Museum Identification) 또한 공개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26일 개관 35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을 연 가운데, 박경도 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슬로건 '청년정신, 국립전주박물관'은 개관 35주년을 맞은 국립전주박물관의 마음가짐을 보여줬다. 모두에게 열린, 흥겹고 신나는 역동적인 박물관을 만들어가려는 서른다섯 청년의 힘찬 의지를 새 슬로건에 담았다. 새 MI는 국립전주박물관 정문 4개의 기둥과 지붕을 표현해 모두에게 열려있는 모습과 역동적인 박물관을 상징한다. 전주(Jeonju)의 영문 알파벳 중 'ON(온)'을 강조한 것은 지역의 이름과 역사에서 떠오르는 온전함, 올곧음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특히 이날 열린 비전선포식은 지난 35년 동안 멋과 풍류를 지닌 예향 전주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문화를 꽃피웠던 전북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해 온 국립전주박물관이 앞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호흡하며 지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지역문화 활성화와 서예문화 특성화를 박물관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전북 지역문화 특별전 '나고 드는 땅, 만경과 동진' 개최, 상설전시 '서예문화실' 개편 재개관이 그것이다.

먼저, 특별전 '나고 드는 땅, 만경과 동진'은 올해 국립전주박물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박물관'이라는 비전 아래 기획된 첫 성과물 중 하나로, 만경·동진 일대의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고대 문화교류의 양상을 조명하는 전시다.

국립전주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은 물론, 처음 전시되는 전북 지역의 최신 발굴 자료들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역 문화유산을 보다 깊이 있게 조명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과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둔 전시다.

이어, 우리나라 전통 서예를 주제로 한 상설전시 '서예문화실'을 다시 연다. 지역에서 강점을 가진 서예문화를 특성화 주제로 설정하고 2021년 전문 전시실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시실을 옮기고 전시 내용 또한 관람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편했다.

서예문화실은 글씨의 외형과 내용, 작가의 삶과 이야기, 전북 지역의 서예문화 등 주제별로 전시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환상적인 미디어아트가 펼쳐진 독립 공간에서 직접 글씨를 써 볼 수 있는 디지털 신기술 융합콘텐츠는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전통적인 미감을 거스르지 않는 편안한 전시 공간을 연출, 작품과 영상이 어우러진 전시실에서 한 호흡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같은 관람경험을 제공한다.

박경도 관장은 "멋과 여유가 넘치는 가운데서도 꿋꿋한 심지를 갖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일궈냈다는 점이 전주와 전북의 매력인 것 같다"며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그 매력을 흠뻑 느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이 26일 부안 소노벨에서 'RISE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600억 규모 지역혁신… 전주대, RISE사업 발대식

트랙별 사업 계획 등 공유… 글로컬 혁신 생태계 구축 앞장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은 26일 전북 부안 소노벨에서 'RISE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단 참여 교수진과 실무 담당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RISE사업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참여 구성원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졌다.

전주대에 따르면 RISE사업을 통해 연간 121억8,000만원, 5년간 약 6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 이는 도내 사립대학 중 최대 규모다. 아울러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에도 선정돼 2년간 약 37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발대식은 한동욱 RISE사업단장의 사업 추진 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Track별 사업 계획, 교육·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 참여 교수의 역할 및 협력 구조 등에 대해 공유했다.

전주대는 RISE사업을 통해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산업 기반 산학협력 고도화 △대학-지자체-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혁신을 이끄는 핵심 대학으로서 지속가능한 글로컬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동욱 RISE사업단장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대학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참여 교수진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JBNU 지역발전연구원
지역 상생 위한 연대 강화

농수산대 · 노인일자리센터 등과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 JBNU 지역발전연구원(원장 권덕철)이 최근 지역 기관들과 잇단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상생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지난 6월 24일에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진진)과 지역 농수산업 발전과 정책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정책 기획, 공동 연구, 자문,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안 해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특히, 통계·정책 자료 등 정보 공유와 산학연 협력 기반 조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지역 농정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25일에는 전북노인일자리센터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JBNU 지역발전연구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기술 기반 노인 일자리 개발, 수요처 발굴,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정책 개발 등에 협력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연계된 사회적경제 기반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0일에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강영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며, 리빙랩 기반의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생태계 조성에 협력한다. 양 기관은 기술 사업화,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정책연계형 연구 개발 등 실질적인 연대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사업과도 연계한 협력 체계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내일 전북 주요 대학 입시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8일 창조나래 시청각실 및 회의실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전북권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대입제도 변화에 발맞춰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진학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각 대학별 전형 방법을 정확히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설명회에는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전주교대, 전북대 등 6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각 대학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30분씩 2026학년도 입학전형 요강과 지원 전략을 안내한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전주대, 원광대, 전주교육대, 우석대, 전북대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학별로 입학사정관이 직접 참여해 대입전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각 학과별 지원전략 및 자율전공선택제 등 양질의 진학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

평화공존교육 교원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년 평화공존교육 교원 역량강화 2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강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연수에는 평화통일교육 학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와 희망 교원 등 210여 명이 참석했다.

제3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을 역임한 상명대학교 주진오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광복 80주년과 한반도 평화의 여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강의 이름 '만경'… 땅의 이름 '동진'…

고대 전북의 문화교류 조명

국립전주박물관 2025년 특별전 '나고드는 땅, 만경과 동진'
고대 유적지 소개 등 3부로 구성…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6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25년 특별전 '나고 드는 땅, 만경과 동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경'과 '동진'은 강의 이름이자 땅의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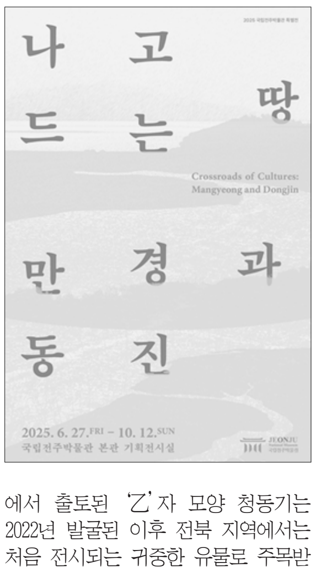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만경과 동진으로 대표되는 전북 지역의 고대 문화교류를 조명하며, 고고학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되새기는 전시다.

26일 전주박물관에 따르면 전시는 총 3부로 구성, 전북의 자연환경 속에서 이뤄진 문화적 접촉, 융화, 충돌, 교역 등 다양한 교류의 층위를 구체적인 유물과 자료를 통해 풀어낸다.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전북이 어떻게 문화의 통로이자 중심지로 기능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번 특별전은 바다와 강, 평야와 고원이 만나는 독특한 지형을 바탕으로 전북이 변방이 아닌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지이자 핵심이었음을 강조한다.

먼저 1부에서는 바다였던 강이 들판으로 변화하는 지형적 특성과,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형성된 주요 고대 유적지를 소개한다.

이어 2부에서는 초기철기시대 만경강 유역에서 꽃핀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조명한다. 이 지역에서는 청동기 제작에 필요한 송풍관과 거푸집이 확인됐는데, 이는 청동기를 직접 제작해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또한 중국 동북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유입된 청동기와 철기도 함께 전시된다. 특히 김제 만경읍 대동리 유적



에서 출토된 '乙'자 모양 청동기는 2022년 발굴된 이후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 전시되는 귀중한 유물로 주목받고 있다. 완주 갈동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는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철기로 평가돼 주목되는 전시품이다.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들은 전북 지역이 발전된 청동기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주는 한편, 새로운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였던 이 지역의 선진성과 포용력을 보여준다.

마지막 3부에서는 삼국시대 이후 전북 지역에서 마한과 백제, 신라, 가야의 문화가 충돌하고 융합하는 모습을 조명한다. 고창,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 일본계 외래 유물은 물론, 백제계 유물도 대거 출품된다. 특히 정읍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꽃 모양 금꾸미개 등 총 73점의 유물은 보존처리를 마친 후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서해안과 내륙 수로를 연결하는 물길은 전북이 고대 해양 교류의 창구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반이 됐다. 삼국시대 해양 제사 유적이었던 부안 죽막동 제사 유적과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청자 가마터인 부안 유천리 유적의 유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시 기간 중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연계 교육 프로그램 '만경과 동진에서 보물찾기'도 운영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에게 직접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준비됐다.

또한 전시의 심화 내용을 다루는 학술대회가 7월 24일 개최된다. '만경강 유역 신문물의 유입과 교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시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있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경도 관장은 "이번 전시는 전북의 고대 문화를 지형, 기술, 교류라는 다층적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라며 "고대 전북이 동북아 교류의 핵심이자 한반도 남부 문화 확산의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획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의 관람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 전통문양,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전주문화재단 예술인지원 일환 허석희 개인전 '새김-무늬'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열린공간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번째 기획전시, 허석희 작가 개인전 '새김-무늬'를 선보인다.

26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1~6일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일주일간 열린다.

예술인지원사업은 전주문화재단이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예술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2월까지 다양한 장르의 전시와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지역예술의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 김연지 작가 개인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프로그램이다.

허석희 작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색지장 이수자이자 제28회 전국한지공예대전 대상 수상자로, 전통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문자도 △보배무늬 △봉황 △학 △길상무늬 등 한국 전통의 상징적 의미를 담은 다수의 작

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가 지역 예술인의 창작세계를 널리 알리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작가 지원을 통해 시민들과 예술의 거리를 더욱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내일 '어린이 창의놀이 한마당'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오는 28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지역 유아 및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2025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 창의놀이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주삼천남초등학교의 사물놀이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주새뜰유치원의 합창 및 조립체조, 전주자연초등학교의 방송댄스 등이 마련됐다.

또한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꿈꾸는 미래마당', '뛰노는 놀이마당'을 주제로 50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